

2026년 6월 넷째 주, 구역 공과

24! 꾀대와 권위자

-요한복음 4장 16~20절(신약 148)-

예배순서

• 찬송: 369/ • 기도: 구역원 중/ • 말씀 속으로/ • 헌금찬송: 365/ • 주기도문

환영/ 마음 열기

1.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2. 요즘 애들은~이란 말을 자주 쓴다./ 3. 사람 만나면 나이를 묻는다./ 4. 듣는 것 보다 말하는 걸 좋아한다./ 5. 남들이 하는 일이 맘에 안 들 경우 발언을 하는 편이다.

말씀 속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불안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세상의 가짜 권위자들, 즉 ‘꾀대’라 불리는 이들 앞에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자신을 포장한다. 이러한 방어기제는 영혼의 습관이 되어 참된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작동하곤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잡아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실존을 치료하러 오신 영적 의사이다.

1. 예수님 앞에 _____ 나가야 한다.

세상의 가짜 권위자(꾀대)들은 타인의 약점을 잡아 군림하려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가면을 쓰게 된다. 그러나 참된 권위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실존을 고치러 오신 영적 의사이므로, 주님 앞에서는 반드시 위선과 포장의 바지를 내리고 민낯으로 서야 한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약속하신 후, 갑자기 영혼의 아킬레스건을 찌르는 명령을 하신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16절)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현재의 남자도 남편이 아닌 여인에게 이 질문은 수치스러운 상처였다. 예수님이 이 치부를 드러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춘 것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서게 만들기 위함이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살리기 위해 모든 진실을 요구하듯,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고 수술하시기 위해 정직을 요구하신다. “만일 누

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요한일서 2:1, 우리말 성경) 여인이 과거를 숨긴 채 종교적 대화만 나누고 돌아갔다면 참된 회복은 없었을 것이다. 인간은 세상 속에서 재산, 갈등, 불안, 속마음 등을 감추는 방어기제를 배우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도 미사여구를 쓰며 거짓된 기도를 드린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껍데기 기도가 아닌 중심을 원하신다. 가식의 가면을 벗고 “주님, 저 돈 때문에 불안해 미치겠습니다”, “제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현대적 버전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는 정직한 고백이 터질 때 비로소 진짜 치료가 시작된다.

2. 예수님은 우리를 _____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_____ 하신다.

세상은 무한 경쟁 속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가면극을 벌인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수용하신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17~18절) 세상의 꾀대들은 약점이 포착되면 심문하고 몰아세우지만, 예수님은 절반의 거짓말 뒤에 숨은 비참한 실존을 공감하시며 “네 말이 옳도다”라고 받아주신다. 심하게 체했을 때 속에 있는 오물을 다 게워 내야 속이 풀리듯, 사마리아 여인은 영혼에 파리 틀고 있던 ‘남편 다섯’이라는 영적 체증을 주님 앞에서 확 게워 낸다. 주님은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오물을 다 받아주신다. 비난 없는 용납을 경험하자 여인의 내면에서 인생의 1 순위였던 마실 ‘물’이나 ‘사람의 시선’은 사라지고, 인간 근원의 갈망인 영적 갈망이 터져 나온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20절) 영혼의 체증이 내려간 자의 종착지는 언제나 예배의 회복이다. 성경의 진짜 회개는 품위 있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수치와 독소를 게워 내는 처절한 탄식이다. 시편의 기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친 속내를 그대로 쏟아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시 109:9~10). 오물이 빠져나간 영혼의 빈자리에 비로소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

나눔과 기도

- 내 삶에서 내면의 아픔이나 죄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거나 용납된 후, 이전에 무덤덤했던 주일 예배, 찬양, 말씀이 전혀 다르게 가슴에 와닿았던 경험이 있는가?
-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과 교회 여름 교육 부서 사역, 온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자.